

화려한 암벽의 자태, 눈호강 하러 왔구나

물 좋고 산 좋은 ‘청송’ 100배 즐기기

주왕산 초입부터 펼쳐진 파노라마 절경
뽕안 속살 드러낸 ‘백석탄’ 청송8경 으뜸

99칸 양반가옥 ‘송소고택’ 한옥의 멋
대명리조트 청송 솔샘 온천은 힐링 천국



여행

청송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고장이다. 북쪽의 비봉산, 남쪽의 보현산, 뽕봉산, 구암산, 동쪽의 태행산, 주왕산, 무포산 등이 청송을 둘러싸고 있다. 이곳은 2011년 국제슬로시티 지정,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될 정도로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좋은 관광자원에 비해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다른 지역들보다 주목을 덜 받아온 역olum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행히 7개월 전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청송구간이 완공되면서 청송여행길이 훨씬 좋아졌다.

●태고의 역사 간직한 자연의 조화, 주왕산과 백석탄

청송 여행의 핵심은 역시 주왕산이다. 요즘 유행하는 “안 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수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다. 721m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등산길 초입 대전사 입구부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화려한 암벽의 자태가 압도적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24곳의 지질명소 중 9곳이 주왕산에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대전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유명한 곳이다. 독특한 천정 양식이 눈길을 끄는 보광전은 보물 제1570호로 지정돼 있다. 대전사부터 주왕산을 오르는 길은 길도 넓고 평탄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다. 무난한 트레킹 코스와 달리 구비구비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눈앞에 시시각각 새로 등장하는 산의 모습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기암단애, 급수대, 주상절리, 시루봉, 학소대 등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보며 걷다보면 수직으로 깊게 패인 거대한 협곡을 만나게 된다. 유추협곡이



청송을 대표하는 지질명소인 930번 지방도로 옆의 백석탄.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옥이 주는 고즈넉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덕천 심부자’ 송소고택, 멋진 조경의 노천온천과 실내 이벤트탕인 매력인 대명리조트 ‘솔샘온천’ (왼쪽부터).



다. 이곳을 지나면 선녀탕-구룡소-용추폭포로 이어진 3단폭포가 기다린다.

청송이 지닌 독특한 지질환경이 만들어낸 절경 백석탄도 있다. 청송8경 중 1경으로 꼽히는 이곳은 신성계곡 북서쪽에 위치했는데, 뽕안 빛깔의 굴곡진 큰 바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히말라야 설산을 떠올리게 한다.

●고즈넉이 느끼며 즐긴다. 송소고택

주왕산이 박력 넘치는 산세의 매력을 만끽하는 곳이라면, 송소고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옥이 주는 고즈넉한 여유를 즐기는 곳이다. 파천면 덕천리에 있는 이곳은 조선 영조 때 만석꾼 심처대의 7대손, ‘덕천 심부자’ 송소 심호택이 지은 집이다. 강릉 선교장, 보은 선병국 가옥과 함께 조선시대 99칸 양반가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한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전국 곳곳에 여러 고택들이 있지만, 송소고택은 그중에서도 아무진 건축기술과 양반가옥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공간 배치,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어우러짐이 돋보인다. 1880년쯤 건립했다고 하니 역사는 다른 고택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당시 경복궁 중건에 참여했던 대목장이 궁궐 건축에 쓰던 귀한 적송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사랑채와 아녀자가 있는 안채를 구분하던 헛간, 외부 손님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채 담장에 뚫린 구멍 등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99칸 양반 저택의 오밀조밀한 구조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남다르다. 한옥체험도 가능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곳에 묵으면서 주변 명소를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

●어디서 쉬까, 온천이 매력적인 대명리조트 청송

청송은 빼어난 관광자원에 비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고급 숙박시설이 없었다. 자연주의 휴양시설을 표방하며 6월28일 개관한 ‘대명리조트 청송’은 이 지역에 처음 생긴 대형 리조트다.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관광단지에서 위치했고 지하 4층, 지상 8층에 객실 313개다. ‘청아한 자연 속 휴식’이란 슬로건처럼 숲을 거닐고 온천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힐링 리조트를 지향한다.

그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솔샘 온천’이다. 지하 780~1000m 암반에서 끌어올린 28~31℃의 약알 칼리성 온천이다. 온천수는 황산이온을 주성분인 중탄산 황산나트륨 온천과 황산염 광천 온천 두 가지. 다른 곳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탕의 구성이나 탕의 실 등 각종 시설이 아기자기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일본 온천 료칸을 연상케 하는 소나무 중심의 잘 가꾸어진 조경이 인상적인 노천온천에는 벚사위, 벤치셋, 드림베스 등 수암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실내 온천에서는 계절에 따라 과일, 약초, 꽃 등을 사용한 이벤트탕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에는 ‘여름과 어울리는 약초’라는 주제로 남자연온천은 북분자와 개똥죽 등을 조합한 이벤트탕을, 여자연온천은 약쭉과 개똥죽 등을 조합한 이벤트탕을 즐길 수 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청송의 특성을 살려 리조트 앞에 999개의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조성한 것도 이채롭다.

글·사진=청송 I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주왕산 시루봉(왼쪽)과 학소대. 청송 주왕산은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기암절벽이 자아내는 화려한 자태가 일품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24곳의 지질명소 중 9곳이 이곳에 있을 정도다.

G마켓 이색빨대, 롯데홈쇼핑 토크쇼, CU 상품명 짓기…

‘신박한’ 쇼케이스, 보통이 아니새우~

(새롭다 신선하다는 의미의 신조어)

유통업계 차별화된 아이디어 인기몰이
친근감·재미로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



유통

‘신박한을 아시나요,’ 유통업계 아이콘으로 ‘신박한’이 뜨고 있다. 새롭다·참신하다·신선하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관심 끌 어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전략은 특히 개성 강한 젊은층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G마켓이 대표적으로, 세상에 없던 새롭고 신선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신박한 쇼케이스’를 오픈했다. 아이디어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첫 신박한 제품은 빙그레 이색빨대 ‘마이스트로우’ 3종으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독특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하트 모양의 빨대를 우유 뚜껑에 끼우면 커플이 함께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커플용 ‘러브스트로우’와 구멍 직경이 12mm에 달하는 대형 빨대 ‘자이언트스트로우’가 그 예다. 남

성현 G마켓 마케팅실장은 “쇼핑 과정에서 고객들이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신박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롯데홈쇼핑 T커머스 롯데OneTV는 신박한 콘텐츠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내놨다. 8월 론칭 예정인 ‘팩트체크 토크쇼’이 대표적으로, 그간 TV홈쇼핑 판매 상품 중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쇼호스트가 직접 시연하고, 상품기획자의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또 패션 전문 쇼호스트가 테마별로 최신 유행 패션 및 스타일링 방법을 제안하는 패션 큐레이션 프로그램 ‘오늘 뭐 입지?’도 론칭한다. 박재홍 롯데홈쇼핑 온라인사업부문장은 “이색 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재밌는 볼거리 및 다양한 정보 등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CU의 대국민 상품명 짓기 프로젝트 ‘네 멋대로 지어라’도 신박한 그 자체다. 새우를 테마로 출시한 간편식품 시리즈(도시락·햄버거·샌드위치·김밥·컵밥)의 이름을 고객들이 직접 짓는 공모전. 치열한 경쟁 끝에 ▲도시락 ‘보통이 아니새우’ ▲김밥 ‘유부



유통업계 아이콘으로 새롭다·참신하다·신선하다는 의미의 ‘신박한’이 뜨고 있다. G마켓은 ‘신박한 쇼케이스’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위에 나 있새우’ ▲샌드위치 ‘세.젤.맛 새우’ ▲주먹밥 ‘한끼 푹딱하새우’ ▲햄버거 ‘날 가지새우’가 각각 1위에 선정됐다. 이나라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상품기획자는 “상품과의 적합성·독창성·재미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며 “간편식품에 고객들이 직접 지은 상품명을 적용함으로써 친근감과 재미를 전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스타세프 요리와 골프대회가 만났다

하나투어 글로벌 골프챌린지 개최
오세득 셰프 점심·저녁 만찬 준비

하나투어가 골프와 미식 테마를 조합한 ‘제56회 하나투어 글로벌 골프챌린지 대회’를 개최한다. 9월8일 중국 연길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스타셰프 오세득이 점심과 저녁 만찬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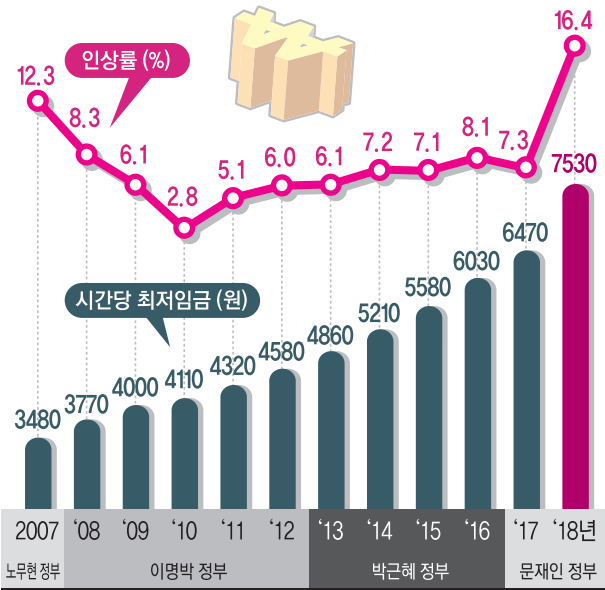
연길은 비행기로 2시간30분이면 달을 수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태풍과 황사가 없고 비가 적어 골프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대회는 백두산의 시작점인 해란강 옆의 해란강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중국 프로대회도 개최한 명문 골프장으로 18홀의 레이크 코스는 모든 홀에서 해란강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대회 전날에는 닭백숙 등 연변 전통 특식을, 대회 다음날에는 제철 자연산 송이버섯을 무제한 삼겹살과 함께 맛 볼 수 있다. 대회 당일에는 오세득 셰프가 준비한 점심과 저녁 만찬을 즐길 수 있다.

9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출발하며, 청주와 부산에서도 출발한다.

김재범 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알바생은 ‘기대’를, 고용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해 알바생 75.8%는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고용주 73%는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했다.	



송탄역 부대찌개, 주안역 예술영화…

전철타고 훌쩍 떠나볼까

코레일 ‘도시, 하루여행’ 전철역 명소 소개
‘도깨비’ 촬영지 배다리 현책방거리 인기

도시 시티투어나 가까운 근교를 당일치기로 나들이하는 데일리 투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코레일이 최근 선보인 ‘도시, 하루 여행’은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느낌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다. 광역전철역을 중심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이 가이드의 핵심. 전철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어 부담이 없고, 미처 몰랐던 도시 속 명물도 만날 수 있다. 이번엔 추천한 명소는 경부선 노랑진역 근처 사육신 공원을 비롯한 다섯 곳.

경부선 노랑진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거리인 사육신 공원은 조선 시대 세조에 반대해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은 사육신이 잠든 곳이다. 인근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로 유명한진 컵밥을 맛볼 수 있는 노랑진 포장마차촌이 있다.

경부선 송탄역은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평택 중앙시장이 있다.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시장 거리는 연간 23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거리 분위기가 무척 이국적이다. 부대찌개, 햄버거부터 인도, 브라질,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다.

경인선 주안역 8번 출구에서 8분 정도 걸어가면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재개봉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상영하는 인천 유일의 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주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모든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경인선 동인천역의 1번 출구 앞 큰길을 따라 내려오면 옛스러운 분위기의 ‘배다리 현책방거리’를 만날 수 있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요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 곳이다. 광장 맞은편으로 10분 거리에는 송현근린공원이 있다. 인천 최초 상수도 시설인 송현배수지와 1980년대 달동네 모습을 재현한 박물관이 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 1번 출구에서 9분 정도 걸으면 어촌의 생활풍습과 염전 등 지역 역사를 간직한 소래역사관이 있다. 여기서 5분 더 가면 80년 전 개통해 1995년까지 운영했던 협궤열차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래철교도 볼 수 있다.

코레일의 ‘도시, 하루 여행’ 5선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앞으로 광역전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하루 여행’ 코스를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여름 최고의 휴가지, 하와이

아시아나항공 캐빈 승무원 추천
오사카, 상하이, 다낭 등도 꼽아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현) 캐빈 승무원들은 하와이를 여름 여행 최고의 휴가지로 꼽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2주간에 걸쳐 소속 캐빈 승무원 2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중인 취항지를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에서 최고 여행지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하와이가 설문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1119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여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다.

권역별 최고 여행지는 일본은 식도락 여행의 명소 오사카, 중국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상하이, 동남아는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는 베트남 다낭, 유럽은 남유럽의 해변이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 대양주는 남반구의 대표적 휴양지 호주의 시드니가 손꼽혔다.

김재범 기자